

# ‘별밤미술관’ 평범한 일상에 스며들다

### 광산구, 쌍암공원 등 5곳에 조성 시민 문화예술 향유·예술인 지원



광산구 첨단 쌍암공원에서 지난해 9월 열린 비대면 전시 프로젝트 ‘별밤미술관’ 1호 개관식에 참석한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이 전시 작품을 둘러보는 모습.

집 앞 공원으로 찾았던 미술관. 캄캄한 산책길을 밝히는 불빛, 그 사이로 아름다운 그림, 조각들이 걸려 있다. 길을 지나다 잠시 발걸음 멈춰 작품을 바라보던 시민들. 평범하던 일상에 예술이 스며든 순간이다.

광주 광산구가 비대면 전시 프로젝트로 선보인 ‘별밤미술관’이 만들어 낸 변화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광산구 내 거점 공간마다 ‘별밤미술관’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광산형 비대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첨단 쌍암공원을 비롯한 수완지구 풍영정천변 길공원, 운남근린공원, 신창역사문화공원, 선운지구 근린공원 등 총 5곳에 ‘별밤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광산구는 각 장소마다 깔끔하게 단장한 컨테이너 1동을 설치했다. 컨테이너는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불이 켜지고, ‘쇼윈도 미술관’이 된다. 전시는 자정까지 이어진다.

광산구는 ‘별밤미술관’마다 매월 다양한 테마를 정해 유명 작가의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쌍암공원 ‘별밤 미술관’에선 현재 ‘축제의 밤’을 주제로 정승원 작가의 서양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송필용(서양화)·이호국(서양화)·이이남(미디어아트)·최대주(서양화)·한희원(서양화)·전범수(조각) 등 작가 6명의 전시가 차례로 진행됐다.

‘별밤 미술관 in 수완’은 한희원(서양화) 작가의 작품 전시에 이어 ‘무릉도원경’을 주제로 박상화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산책 나온 시민들을 맞고 있다. ‘별밤 미술관 in 운남’은 지난달 말부터 ‘봄바람 부네’를 주제로 김해성 작가의 서양화 작품을, ‘별밤 미술관 in 신창’은 ‘매화를 탐하다’를 주제로 강남구 작가의 서양화 작품을 전시 중이다.

지난 7일 문을 연 ‘별밤 미술관 in 선운’에선 오

전규 작가의 동양화 작품 ‘물 흐르고 꽃피면(水流花開)’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시민 반응도 좋다. 광산구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 너무 좋다는 말을 한다”면서 “작품을 사고 싶으며 작가를 소개시켜달라거나 별밤미술관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많다”고 말했다.

‘별밤미술관’은 코로나19로 설 자리가 줄어들었던 지역 예술인에게도 힘이 되고 있다.

광산구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지역 작가를 최우선으로 올해 상반기 25명의 작가에게 전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상반기 전시가 끝나면 추천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참여 작가를 선정한다.

광산구는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별밤 미술관’마다 1명의 전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전국에서 광산구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전북 정읍시가 ‘별밤미술관’을 찾아 운영 노하우 등을 배우고 갔다.

광산구는 비대면 문화예술 인프라 확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광산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는 온라인 송출이 가능한 ‘광산 온에어(ON-AIR), 행복오네오’ 스튜디오를 조성 중이다. 이르면 내달 개관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민이라면 누구나 ‘배우랑게’

### 학습포털 구축 151개 강좌 운영

광주 광산구가 교육 정보를 한데 모은 평생학습포털 배우랑게(<https://edu.gwangsan.go.kr>)를 정식 오픈했다. <사진>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부터 수강 신청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배우랑게’는 지난 2월 25일부터 한 달 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운영 중이다.

‘평생학습포털’은 광산구 내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기존 광산구 평생교육 홈페이지는 교육 정보가 부족해, 수강 신청 기능이 없어 학습관리가 어렵고, 참여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시민 교육프로그램 통합

관리와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 광산구는 구 전체 교육정보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지난 2월 구축이 완료된 ‘광산구 평생학습포털 배우랑게’는 각 기관별 강좌를 통합했다.

현재 평생학습포털에는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복지관, 행복학습센터 등 65개 기관이 등록했으며, 교육 프로그램 151개와 강사 204명이 등록돼 활동 중이다. 원하는 검색어 하나만 입력하면 교육 일정, 장소, 내용, 강사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정식 오픈 이후 20여 일만에 주민 1191명이 가입하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광산구는 앞으로 민간 등록 기관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700개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생학습포털에 담겠다는 목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운동하기 좋은 공원’ 만들기 박차

### 32억 투입 도심속 걷기환경 조성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장기화를 극복하고, 시민의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걷기 좋은 도시공원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실내 활동이 제한되고, 야외 활동이 가능한 도시공원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운동하기 좋은 도시공원 환경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휴식힐링 공간인 도시공원을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운동으로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신가2근린공원 헬스공원 조성 등 22개소에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및 숲 조성을 추진한다.

풍영정천을 포함한 주요 공원 산책로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정비 및 예·제초 작업 인력을 증원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걷기 광산 프로젝트’의 일환인 ‘풍영정천 행복건강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풍영정천 주변 공원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수완호수공원 음악부수’(사진)에선 이달부터 10월까지 하루 6회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ABBA(아바)의 Dancing Queen(댄싱퀸)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19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너진 주민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동하기 좋은 공원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지친 주민의 몸과 마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치매걱정 없는 행복광산 프로젝트’ 눈길

###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치매조기검진·파트너 양성 교육

광주 광산구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에게 치매조기검진, 치매파트너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걱정 없는 행복광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산구치매안심센터는 대한노인회광산구지회, 한마음금고복지센터, 동그라미노인복지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연계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12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예방 및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

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파트너는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치매동반자’가 되도록 했다.

양성 교육을 수료한 어르신들은 지역주민과 동반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는 등 치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면서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하라”

### 광산구의회 성명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 20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뿐 아니라 일본 자국민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대한다”며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해양 생태계와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